

현대공간의 전통요소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태도: 전문 디자인잡지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Us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garding Use of Korean Traditional Elements in Contemporary Spaces: Focused on the Article Contents of Professional Design Magazines

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부교수 이 민 아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un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n-Ah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 II. 관련연구의 경향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us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Korean traditional elements in contemporary space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article contents of two design magazines, from their issues of January 2000 through December 2009, for a total of 87 ca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t motives for applying traditional elements to current living spaces were individual tastes, preference for a secluded life, and the users' childhood memories. Second, the most frequently used traditional element was traditional structure. Others were traditional spatial compositions and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The two main purposes for renovating a space or constructing a building were to preserve traditional ambience or to add convenience and practical use to it. Third,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advantages of traditional elements were their environment-friendly characteristics, such as connecting to nature and using natural materials. Fourth, the users preferred, in order, Ma-dang, natural environments, doors/windows of various types and multiple functions, Toet-maru, Dae-cheong, and Nu-maru.

주제어(Key Words) : 전통요소(traditional elements), 사용자 인식과 태도(us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전문디자인잡지(professional design magazines), 기사내용분석(article contents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Min-Ah Lee,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unsan National University, Miryong dong, Kunsan, Jeonbuk, 573-701, Korea Tel: +82-63-469-4625 Fax: +82-63-469-4621 E-mail: leema@kunsan.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09-006543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 문화는 세계화라는 문구 하에 더욱 단일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 국가와 개인은 각각의 고유 전통과 개별성을 가진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전통문화의 재현과 재해석을 통한 전통의 대중적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건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은 시대별로 다양한 표현의 변화를 보여 왔는데 1960-70년대는 서구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다소 틀에 박히고 보수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이 많았던 반면, 80년대에는 서구화와 전통이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과거의 유산을 수용하는 정도에서(김경재, 1999) 현대적 재료와 결합하여 표현되었다(이숙경, 최상현, 2006). 90년대 이후에는 우리 삶의 본질과 전통에 대한 이해, 한국적 보편성 및 한국성의 미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면서(이숙경, 최상현, 2006), 개인적 가치와 성향이 전통 안에 창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전통이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미래를 위해 새롭게 창조, 계승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통이 표현된 건축의 유형에 있어서도 70-80년대에는 정부주도에 의한 공공건축물/대형시설물이 대부분이었다면, 90년대 이후는 작가에 의한 전통의 창의적 해석과 표현방식, 실험정신이 대두되면서 보다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의 은유적 표현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다(김경재, 1999).

전통은 시대와 생활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현대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이나 실내건축에서의 전통은 대중과의 호흡보다는 정부주도의 혹은 현대 작가들만의 디자인 어휘로서 재해석되어 표현되어 왔다. 관련 연구들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건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재해석된 전통 표현을 철학적으로 분석, 학문과 연계시킨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건축주의 본래 의도와 태도, 그리고 사용 후 건물에 대한 선호요소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현대공간에 나타난 전통요소를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이들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이주, 개조 및 신축,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동기, 그 결과 및 영향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통요소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선호사항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전통요소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① 한옥 : 신영훈(1983, p. 82)은 한옥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 이 땅에 세워지던 독특한 우리네 집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정의를 모두 수용하되, 자료수집 대상이 디자인 잡지임을 감안하여 미디어와 일반 대중이 한옥이라고 부르는 전통양식의 건축물로서 최소한 기둥 및 보가 전통 목구조 방식이고 지붕에 기와를 얹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자연재료의 사용이 최대한 시도된 건물로 정의한다.
- ② 전통요소 : 본 연구에서 전통요소는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사상과 종교, 공간구성, 자연환경, 구조, 오브제, 마감재를 의미하며 세부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 ③ 현대공간 : 현대사회에서 일반인들의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모든 공간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공간 중 우리나라의 전통요소 즉, 전통사상과 종교, 공간구성, 자연환경, 구조, 오브제, 마감재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I. 관련연구의 경향 고찰

1.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전통요소 분석 틀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을 할 때 전통요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틀이 만들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표1 참조). 신미옥과 김남효(2008)는 전통적 표현요소를 사상, 관념, 사회문화, 조형미학, 공간개념 등의 무형적 요소와 형태, 구조, 색채, 재료, 문양 등의 유형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오혜경과 이지현(2007)은 무형적 요소에 자연관 특성(자연과의 합일, 순응, 존중, 숭배), 사회문화적 특성(세시풍속, 놀이, 관습, 규범, 가족제도, 생활방식, 음식문화), 사상적 특성(홍익인간, 풍수사상, 음양오행, 종교), 조형미학적 특성(여백, 비례, 간결, 소박, 단아함)을 두었고, 유형적 요소에는 바닥, 벽, 천장, 창, 문, 가구 및 소품을 두었다. 이와 비슷하게 이숙경과 최상현(2006)은 디자인개념 측면에서 개념공간과 형태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한 뒤 개념공간은 정신적 인자, 그리고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전통요소 분석 틀

신미옥, 김남효(2008)	무형적요소	사상, 관념, 사회문화, 조형미학, 공간개념	
	유형적요소	형태, 구조, 색채, 재료, 문양	
오혜경, 이지현(2007)	무형적 요소	-자연관(자연과의 합일, 순응, 존중, 숭배), -사회문화적 특성(세시풍속, 놀이, 관습, 규범, 가족제도, 생활방식, 음식문화), -사상적 특성(홍익인간, 풍수사상, 음양오행, 종교), -조형미학적 특성(여백, 비례, 간결, 소박, 단아함)	
	유형적 요소	바닥, 벽, 천장, 창, 문, 가구 및 소품	
이숙경, 최상현(2006)	개념공간	정신적인자	사상과 종교, 전통공간의 특성 및 공간구성
	형태공간	물리적인자	자연환경, 구조적 요소(건축 내외부요소), 오브제적 요소(가구와 장식품), 마감요소(색채, 빛, 재질, 재료)

〈표 2〉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전통요소 분석 틀

구성인자	전통요소	세부요소
정신적 인자	사상과 종교	홍익인간, 음양오행, 풍수지리, 허와 실 사상, 민간신앙, 불교, 유교, 도교 등
	공간구성	연속성, 위계성, 개방성, 대칭적 비대칭, 내부 공간적 외부 공간, 개방과 폐쇄의 교차, 여백, 중첩, 다용도적 공간성, 무자성적 공간성, 사이공간과 같은 공간의 개념적 특성
물리적 인자	자연환경	경관표현과 조경의 도입, 자연과의 조화, 자연에의 접근성, 수목, 지형 등
	구조	목조 가구결구식 구조, 기둥, 보, 창호(벽), 서까래(천장), 온돌과 마루, 한식지붕틀, 기단 등
	오브제	고가구, 생활기물, 장식품, 문양 등
	마감재료	오방색, 목재, 흙, 종이 등

형태공간은 물리적 인자로 보았다. 정신적 인자의 분석요소는 사상과 종교, 전통공간의 특성 및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졌고, 물리적 인자는 자연환경, 구조적 요소(건축 내외부요소), 오브제적 요소(가구와 장식품), 마감요소(색채, 빛, 재질, 재료)로 구분하였다.

한편, 유영희(2005)는 공간이나 조형의 구성요소 측면과 요소가 조직되어 형성하는 구성원리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공간구성, 벽 구성, 동선, 빛, 조망, 내외부 공간의 관계로, 구성원리 측면에서는 위의 요소들이 조직되어 나타나는 자연과의 조화, 유기적 상호관련성, 상호보완적 이중구조, 공간의 시간성, 위계적 질서로 분류하였다. 오세욱과 김형우(2007)는 전통주거건축의 공간특성을 크게 공간의 분화와 연결로 보고 이 중 분화를 면적구성, 연결을 선적구성으로 보았다. 면적구성공간은 방과 마당으로 폐쇄성, 중심성, 영역성, 경관성, 탈기교성이 있으며, 선적구성공간은 마루와 담장이 대표적이고 개방성, 연결성, 가변성, 경계성, 경관성으로 구분하여 무형적 요소 측면에서만 한국성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중 분석사례에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이숙경과 최상현(2006)의 전통요소 분석 틀을 참고하여 정신적 인자에 사상과 종교, 공간구성을 두었고, 물리적 인자에 자연환경, 구조, 오브제, 마감재료를 두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전통요소에 해당하는 세부요소 틀을 〈표 2〉에 정리하였다.

2. 관련연구의 경향 고찰

본 장에서는 현대공간의 전통요소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관련 연구는 크게 재료, 색채, 문양 등과 같은 전통의 장요소의 적용을 분석한 연구와 전통 공간의 구성 및 형태 등의 적용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대공간에 나타난 전통의장요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전경희와 남경숙(2005)은 2000년 이후 발간된 정기간행물에 나타난 전통재료, 색채, 문양 등 전통의장요소의 현대적 표현을 조사하였는데, 전통적 표현을 형태와 내용으로 구분한 뒤 형태의 직접적, 변용적 표현, 그리고 내용의 은유적, 상징적 표현요소를 분석하였다. 신미옥과 김남효(2008)는 실내공간의 가구와 소품에서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디자인 정기간행물과 일간지에서 사례를 발췌하고, 무형적 요소와 유형적 요소, 혹은 2가지를 동시에 반영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공간구성 혹은 형태 등을 분석한 연구로서 먼저, 1995년 이후의 전문 건축 및 실내디자인 잡지에 나타난 디자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성의 수용태도 측면에서 직설적 모방, 부분적 원용, 부분적 변용, 개념적 수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김국선, 오옥재, 이은민, 이연숙, 2003), 그 결과 전통요소를 단순화 하고 변형하여 재해석하는 부분적 변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경과 최상현(2006)은 90년대 이후 전통성 및 한국성이 표현된 것으

로 거론된 작품 8개 사례에 대한 비평 등을 수집하여 이들의 한국성 표현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간구성과 재료에 있어서의 한국성 표현이 우세하였다. 이완건과 정례화(2006)는 국내 잡지에 소개된 단독주택 중 90년대 서울에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현대주택의 전통성을 형태와 공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형태에 있어서는 조형형식과 부분디테일의 변용, 대칭/비대칭과 같은 디자인 원리의 재현 및 직설적 표현 등이 있었고, 공간에 있어서는 공간의 배치 및 연계, 진입방식, 채의 구성, 여백공간으로서 마당의 도입, 전통창호를 이용한 외부의 내부화와 같은 수법을 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혜경과 이지현(2007)은 2000년에서 2005년 까지 관련 잡지와 사이트를 검색하여 한정식 레스토랑 18곳을 선정 한 뒤 방문 조사하였는데, 사례별 한국성 표현요소를 무형적 요소와 유형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현대적 양식을 주조로 전통요소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보조적으로 첨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현대공간의 전통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그 초점을 건물에 맞추어 전통의 원형과 변형, 구성요소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였고, 실제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공간의 전통요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태도, 선호하는 요소, 전통요소의 적용 동기 등을 사용자 관점에서 조사하여 최근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통요소의 현대화 및 대중화 정책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공간에 나타난 전통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인식, 선호요소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많은 사례가 수집될 수 있는 관련 전문 디자인잡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잡지의 선정은 건축 및 실내디자인 관련 간행물 중에서 건축가나 전문가, 비평가적 관점이 아닌 거주자 및 사용자의 생활이나 가치관 관점의 인터뷰 기사가 많고 독자들에게 관련 전문 지식도 전달해주며,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조사대상으로서의 가치가 검증된 잡지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2001년 복춘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대두된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그 이전에 창간된 잡지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행복이 가득한 집』(1987년 9월 창간)과 『까사리빙』(2000년 4월 창간)을 선택하였고, 자료수집의 대상년도는 2000년 1월호(까사리빙은 창간호인 4월호부터)에서 2009년 12월호까지로 하였다. 수집 대상기사는 해당 잡지에 소개된 다양한 공간사례 중 우리나라의 전통요소를 담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현대

인들의 생활과 태도에 관련된 기사로 정하였다. 그 중 사용자의 이주 동기나 건물의 개조, 신축, 혹은 보수의 동기과 과정, 의도, 사용자의 전통요소에 대한 가치관, 인식, 생활태도, 선호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전통요소의 일부분(예: 마당, 마루, 가구 등)만을 모아 기획기사의 형태로 만든 경우는 배제하였고, 취재원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례만을 수집하였다. 해당건물의 사용자가 건축가나 디자이너 본인인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철학적, 전문가적 관점이 아닌 일상적인 가족생활과 건물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등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었을 경우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기사의 수집은 각 잡지의 인터넷 사이트(행복이 가득한 집: <http://happy.design.co.kr>, 까사리빙: http://www.casa.co.kr/company/n_living_list.jsp)의 월별 기사리스트와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행되었고, 인터넷에서 기사출력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당기사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2개 잡지 총 236권에서 92건의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중 2개 잡지 모두에서, 혹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중복 취재된 사례의 기사는 그 내용이 유사하여 종합 정리한 뒤 총 87사례에 대한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한옥사례가 53사례였고, 현대 건축물 사례가 30사례, 기타(훈집, 황도집 등)가 4사례로 나타났다. 한옥의 경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한옥, 혹은 개인적으로 매입한 도시형 한옥 등을 개인과 가족의 생활양식에 맞게 복원, 개축, 개조하여 생활하거나 그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사례, 일정한 대지에 한옥을 신축한 사례 등이 있었다. 현대 건축물의 경우 현대적 건축방식으로 설립된 일반 건물이나 주택, 아파트 등의 공간에 부분적으로 전통 요소를 도입하거나, 전통적 공간구성의 원리 및 조형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조, 신축한 건물 등이 있었다. 용도는 총 87사례 중 주택이 51사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거복합(9사례), 작업실(7사례), 사무실(4사례), 문화체험공간(4사례), 숙박공간(3사례), 식음공간(3사례) 등의 순이었다(표 3). 주택의 경우 빈 방을 임대용으로 하거나 일부를 가족의 취미실, 외부인의 문화체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주 용도가 '가족의 거주'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였다. 건물의 용도별 생활 내용은 <표 4>에 정리하여 나타났다. 지역별로 건물의 위치를 보면 서울이 49사례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9사례, 다음으로 경북(6사례), 전남(3사례), 인천(2사례)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건물로의 이주, 현재 건물에 전통요소를 적용하게 된 동기

〈표 3〉 분석대상 기사건수 및 분석사례의 용도

연도	수집 기사	분석사례의 용도											
		주택	주거복합	작업실	사무실	문화체험 공간	숙박	식음	전시	다실	교육	의료	마을
2000	9	6	1	2									
2001	6	2			1			1	1			1	
2002	8	4	1	2			1						
2003	10	5	1		1	1		1		1			
2004	8	6					1				1		
2005	11	6	3	1									1
2006	7	4		1	2								
2007	8	4		1		1	1	1					
2008	13	11	2										
2009	12	7	1		1	2			1				
총건수	92	55	9	7	5	4	3	3	2	1	1	1	1
분석 사례수	87	51	9	7	4	4	3	3	2	1	1	1	1

〈표 4〉 분석사례의 용도별 생활내용

주택	생활터전인 주거를 주 용도로 하면서 개인 작업을 겸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여분의 방에서 소규모 모임과 세미나, 파티, 바, 문화체험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두기도 하며,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렌트하기도 함
주거복합	주거와 함께 작업실이나 전시공간, 교육공간, 사무실이 복합 설치된 경우
작업실	개인 작업실을 주용도로 하며 소규모 모임, 개인취미(영화관)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함
사무실	사무를 주 용도로 하며 그 외에 전시, 공연, 파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문화체험	국내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체험을 기본으로 전시회, 연회, 각종 소모임과 행사 등이 이루어짐
숙박	숙박을 주 용도로 하며 기념품 가게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식음공간	카페, 식당 등을 주 용도로 하며 공연과 같은 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음
전시	전시를 주 용도로 하며 방문객을 위한 다실을 운영하고 있음
다실	차를 마시고 수양하는 곳으로 공간마다 테마를 달리하여 구성, 상업공간은 아니며 지인들과의 모임을 주로 함
교육	전통관련 교육을 주용도로 하여 강의실과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의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전시 공개하기 위한 장소로 마당을 이용하고 있음
의료	진료와 치료,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원으로 황토치료실과 물리/침구치료실, 약재목욕실, 구들, 정자 등의 공간으로 구성
마을	생활하는 주택 외에 미술관, 카페, 공방, 무대, 작업실, 극장, 숙박시설 등이 현재 있거나 건립예정임

〈표 5〉 분석사례의 소재지

서울	경기	경북	전남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북	미상
49	19	6	3	2	1	1	1	1	1	1	2

- ②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
- ③ 신축 및 개조공사의 주요의도: 사용자가 건축자에게 요구했던 사항이나 공사를 시작할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 등
- ④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장점: 시각적 측면, 정서적 측면
- ⑤ 선호하는 장소 및 부분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현재 건물로의 이주/전통요소를 적용한 동기

분석사례별로 현재 건물로의 이주 및 전통요소를 적용한 동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점 한 가지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한옥에 오래 살아 익숙했다든지 한옥과 문화재,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개인취향에 의해 결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사례), 다음으로 한적한 생활에 대한 그리움(10사례), 오랜 염원

〈표 6〉 현재 건물로의 이주, 혹은 공간에 전통요소를 적용한 동기

주요동기	사례수	세부내용
개인취향	19	한옥에 오래 살아 익숙함, 오랜 문화재 사랑, 한옥을 좋아함, 오래된 것을 좋아함
한적한 생활 선호	10	한적한 곳에 대한 그리움, 몸과 마음의 휴식, 조용히 은둔하기 좋은 곳, 도시의 소음과 고층빌딩으로부터의 도피, 마음의 정리
오랜 염원	9	자녀의 염원, 나의 이상이 담겨있고 가족의 쉽터가 되는 집을 오래 전부터 짓고 싶었음
과거 기억과 추억	8	한옥생활을 했던 유년시절, 가족과의 기억과 추억, 오래전 한옥에서의 경험에 대한 좋은 기억
선조의 유산	7	시할아버지, 어머니, 선조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의 복원, 개조
개인적인 필요	7	공간의 이미지 변화, 공간의 확장, 하고 있는 일이 전통과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 등
다른 사례를 보고 감동	6	잡지, 다른 동네, 여행 중 들린 장소에서 잘 지어진 한옥을 보고,
자연에 대한 그리움	5	전원생활, 자연, 햇살, 산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전통의 홍보	5	외국인에게 전통문화, 전통음식을 소개
가족	5	자녀의 정서교육 및 자연교육, 가족의 안락한 동거를 위해
외국생활 후 향수	3	외국생활 후 전통과 한국에 대한 향수가 생김
미상	3	-

(9사례), 한옥에 대한 기억과 추억(8사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의 복원과 관리, 보존, 혹은 개인적인 필요(각각 7사례), 다른 사례를 보고 감동(6사례),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리움, 전통의 홍보, 가족(각각 5사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들은 전통요소가 현대인의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분위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항상 그리워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나 이루어야 하는 소원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동기별 세부내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개인취향)“저는 태어난 집도 한옥이고, 원불교 교무로 발령이 났던 교당도 한옥이었고, 서울에 와서 생활한 중로교당도 한옥이었습니다. 평생 한옥에서 살았기 때문에.....”(행복이 가득한 집, 2009년 1월호)

(가족)“강남 8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도 많았지만...지식만 넣어주는 교육보다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가르침이 우선이란 생각에”(까사리빙, 2009년 1월호)

2.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

건물의 실내외에 적용된 주요 전통요소를 관련연구의 고찰에서 설정된 분석 틀에 따라 정신적·인자·인 사상과 종교, 공간구성, 그리고 물리적·인자·인 자연환경, 구조, 오브제, 마감 재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2의 분류 참조).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례별로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 1개만을 추출하였다.

전체 87사례 중 71사례(81.6%)가 전통적 요소의 물리적 인자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 중 목조 가구결구식 구조를 보존하고 유지하거나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 사례가 가장 많았다(53사례). 그 외 전통적 공간구성 특성인 개방성, 연속성, 여백, 확장성 등을 강조하거나(13사례), 흙, 종이, 돌, 나무 등의 자연 마감재(10사례)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오브제의 적용에는 격자패턴, 고가구, 전통소품의 적용(4사례)이 있었고, 자연환경은 주변의 자연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조화를 꾀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으며(4사례), 사상과

〈표 7〉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

구성인자	전통요소	사례수	내용	세부사례
정신적 인자 (16사례)	사상/종교	3	전통사상과 정신, 철학적 느낌을 공간에 구현	음양오행, 풍수지리, 무의식의 세계, 모심과 배려의 미학, 고요와 침잠의 표현
	공간구성	13	목구조는 아니지만 전통 공간의 구성 특성에 중점	개방성, 연속성, 사이공간, 여백, 내외공간의 조화, 확장성의 표현
	자연환경	4	자연환경과의 연결 및 조화, 혹은 자연에의 적용에 중점	주변 녹지의 직접적 수용, 경사지의 이용, 대지의 확장, 정원을 향해 개방된 공간
물리적 인자 (71사례)	구조/틀	53	목조 가구결구식 구조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전통요소를 적용	원형의 골격과 틀 복원, 한옥의 기본구조 고수, 대들보/기둥/서까래의 보존
	오브제	4	전통구조나 공간구성과 관계없이 전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패턴, 가구, 소품 등의 오브제 배치 적용에 중점	격자패턴, 고가구 등 전통소품
	마감재	10	목구조나 공간구성보다는 흙, 나무, 돌 등의 자연재료 적용에 중점을 둔 경우	한지, 황토, 돌, 흙, 생소나무 이용

<표 8> 개조 및 신축공간의 주요 디자인 의도

주요의도	사례수	세부내용	
전통적 분위기	전통의 정취	28	건축주의 의도가 최대한 원형을 살리거나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전통+실용성	23	전통적 분위기와 함께 개인 작업이나 일, 가족의 편의에 맞게 현대적 편의시설과 실용적인 공간의 첨가를 중요시 함
	전통+개인취향	6	전통의 틀을 갖되, 내부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의해 그 양식을 달리함
자연친화	자연과의 연계	5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외부의 자연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
	친환경 재료	5	흙, 황토 등의 건강마감재와 생소나무, 한지, 벗짚과 억새 등의 재료이용을 강조
사상 & 정신	전통사상	4	음양오행, 풍수인테리어, 도에 대한 관심의 표현
	고요와 침묵	4	감성에 중점을 두고 무의식의 세계 등 철학적 감성을 강조
공간개념	여백	3	기본 공간 외의 공간들은 되도록 비우고자 함
	개방성/소통	3	공간간의 상호소통과 내외부의 관계를 중요시
	연속성	3	자연스러운 시선의 연결과 다양한 단의 변화
	개방과 폐쇄의 교차	2	밖으로 폐쇄적이고 안으로 열린 마당의 강조, 내외간의 탈경계와 각방의 영역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고려함
	전통의 상징	1	전통공간의 특정한 공간, 예를 들어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공간의 마련에 중점

종교는 음양오행, 풍수지리, 무의식 등을 공간에 표현하고자 하였다(3사례).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와 세부내용을 <표 7>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3. 신축 및 개조공사의 주요 의도

모든 분석사례가 신축이나 복원, 개조, 보수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공사를 시작하였을 당시 사용자가 공간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주요 의도와 건축가에게 요구했었던 주요 개념, 기대되었던 결과를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통적 느낌과 분위기(57사례)가 주요 의도였던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 자연 친화의 표현(10사례), 전통 사상과 정신의 표현(8사례), 그리고 전통 공간구성의 개념표현(12사례)이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적 느낌과 분위기의 표현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정취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거나(28사례),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에 맞는 현대적 편의시설과 공간 등 실용적 생활의 목표를 첨가한 경우도 있었다(23사례). 자연 친화의 표현에서는 자연과의 연계(5사례)와 친환경재료의 사용(5사례)이 있었고, 전통사상 및 정신의 표현에 있어서는 고요와 침묵(4사례)과 전통사상(4사례), 그리고 공간개념의 표현에서 여백(3사례), 개방성 및 소통(3사례), 연속성(3사례), 개방과 폐쇄의 교차(2사례) 등이 있었다(표8 참조).

(전통의 정취)“뿔마루나 손잡이 등 작은 부분까지 전통 한옥의 느낌을

살려달라고 했고.....”(행복이 가득한 집, 2005년 2월호)
 (전통+실용성)“무엇보다 강의실만큼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전통이라고 해서 마냥 과거로의 회귀나 답습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시각적, 정서적으로 전통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실제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곳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곳...”(행복이 가득한집 2004년 2월호)
 (자연과의 연계)“외부로부터는 철저히 차단되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주변 녹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을 원했다”(까사리빙, 2006년 1월)

4.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장점

사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해당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모두 조사하였고 이를 시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¹⁾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1) 시각적 측면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장점 중 시각적 측면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 자연재료 등이 포함된 자연 친화성이 가장 많았고(51사례), 마당, 툇마루, 창호 등에서 보이는 개방성(17사례)과 세월 및 계절, 날씨의 변화에 따라 모습이 바뀌고 살아 숨 쉬는 듯한 공간의 유기체적 성질(15사례)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노출구조나 세부디테일, 정원과 마당 등의 미학적 아름다움(10사례)과 소박한 특성(9사례), 전통의 정취(8사례), 한옥이 밀집된 동네의 풍경(7사례)과 안정적 스케일, 사용자요구 맞춤형 등의 인간중심적 특성(6사례)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밖에 공간구성의 개념적 특성인 연속성(4사

1) 본 장에서 의미하는 시각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관련연구의 고찰에서 정리된 전통요소 분석 틀의 물리적 인자(유형적 요소)와 정신적 인자(무형적 요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의 시각적 측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1차적으로 보이며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정서적 측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활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표 9)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장점-시각적 측면(복수응답)

시각적 측면	사례수	세부사례 및 설명
자연 친화성	51	자연환경(정원, 산, 공기, 햇빛, 바람, 텃밭, 경사지)과의 연계 및 근접성, 자연재료(흙, 나무, 한지)의 사용, 해체 후 자연으로 돌아감
개방성	17	작지만 넓어 보임, 외부와의 연계, 외부로 확장되는 내부 공간, 경계의 모호성, 관련 공간 및 요소로는 마당, 텃밭, 창호, 수평적 가구가 있음
유기체적 성질	15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계절과 날씨에 반응, 살아 숨 쉬는 듯한 성질, 세월이 가면서 더해지는 아름다움, 계속 다듬고 관리해야 하는 특성, 집과 땅의 관계형성
미학적 아름다움	10	노출구조(서까래, 기둥, 보)의 아름다움, 선과 여백(마당)의 아름다움, 세부 디테일(자연과 흙을 닮은 색, 간접조명/한지조명, 창호)의 멋스러움, 정원
소박함	9	공간의 비움, 장식의 절제/수수함 및 깔끔함, 단아함, 필요 물품만 수납
전통의 정취	8	전통적 외관, 고재와 전통소품 및 디테일의 정취, 처마, 다락, 아궁이, 마당 등을 통한 풍류(선, 가락, 여백 등)/조상의 정신(열, 흥, 정, 맛, 격), 관련 공간 및 요소는 온돌, 재래식 화장실, 대들보, 창살모티프 등
동네	7	동네의 예스런 분위기, 골목길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만남, 밀집 한옥 군, 작은 상점, 많은 행인, 풍경
인간 중심성	6	낮은 스카이라인, 안정적 스케일, 사용자요구 맞춤형, 인간미 있는 작은 문과 좁은 면적, 손안에 쏙 들어오는 공간, 안정적 시선
연속성	4	공간의 연결, 단의 변화를 통한 공간의 전개
가변성	4	공간의 크기변화, 융통성 있는 공간, 이동성 있는 가구
과학성	3	환경(온습도)의 자연조절, 목재가 서로 지지하며 공간창출, 온돌(아궁이), 처마의 기울기, 재료의 과학성
중첩성	2	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또 다른 방, 마당의 중첩, 독립공간의 중복
영역성	1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
불완전성	1	완벽하지 않은 형태의 부재(균열이 있는 나무, 정확하지 않은 천장부재) 수용

(표 10)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의 장점-정서적 측면(복수응답)

정서적 측면	사례수	세부 사례 및 설명
정서적 안정	35	편안함, 고요함, 아늑함, 여유로움, 감정의 순화, 마음과 토양의 소통(기), 관련 공간 및 요소는 대청, 마당, 텃밭, 연못, 정원, 오래된 담, 고가구, 병풍, 낮은 가구, 자연소재, 거친 나뭇결, 백년 넘은 기와
문화적 컨텍스트	20	대를 이은 기억, 특별한 스토리텔링, 형성된 문화, 고향, 아버지, 희노애락의 세월, 관련 공간 및 요소로는 다락방, 텃밭, 골목, 누마루, 맷돌 등
자연과 시간의 변화를 체험	15	기후, 사계절의 변화나 아침과 저녁을 직접적으로 느낌, 즉 시간의 의미를 깨달음, 관련 공간 및 요소는 마당, 대청, 창호, 재료(오래된 목재)
생활태도의 변화	11	무소유, 소박한 생활, 긍정적, 적극적, 부지런한 생활태도로의 변화, 생각이 넓어짐, 겸손의 미덕을 배움, 슬로우 라이프, 삶의 방향을 이웃과 봉사로 변환, 좁은 면적의 영향
불편함의 미덕	9	편리하지 않지만 그것이 장점으로 느껴짐, 작지만 답답하지 않음, 불편한 삶의 진정한 의미, 낮은 문 높이
전통의 가치	5	오래된 느낌, 보존해야 하는 전통 그 자체, 시대의 느낌, 소품
집에 대한 애정	4	집의 의미, 삶의 뿌리, 집과 가족과의 관계형성(노출구조, 직접 관리로 인해 집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느낌, 집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
이웃관계/정겨움	4	친밀한 이웃, 나눔, 정겨움
가족 중심적 생활	2	무엇이든 가족과 함께 함
영감의 제공	1	창작의 원천을 제공함

례)과 가변성(4사례), 중첩성(2사례), 영역성(1사례) 등이 언급되었고, 전통요소의 과학성(3사례)과 완벽하지 않은 데서 오는 멋(불완전성, 1사례)을 들기도 하였다(표9 참조).

많은 사용자들이 외부 자연환경과의 조화나 개방성, 동네 분위기 등 실내외 환경의 관계형성을 장점으로 꼽았다는 것은 현대 건축물과 밀집된 아파트에서의 전통요소 적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실내공간에 전통요소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며, 여기에는 실내공간과 복도, 홀과 같은 공용 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단지환경과의 공간적 소통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첩성, 유기체적 성질) “한옥은 레고장난감 같은 구석이 있어요. 독립된 공간이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지붕과 처마가 곡선을 그리며 오르내리기도 하는 게 장난감으로 집을 쌓고 짜깁기 하는듯한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때가 타고 굴곡이 진 오래된 목재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세월이 쌓여야만 가능한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하는 거죠”(행복이 가득한 집, 2001년 11월호)

(개방성, 가변성, 중첩성, 불완전성) “문을 여닫는 것만으로 공간의 크기와 느낌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옥의 매력입니다....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다른 방, 그 방 건너편의 또 다른 방, 반대로 문을 닫아걸

면 오직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 집니다....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서 완벽함....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반듯하게 만들기보다 기울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행복이 가득한 집, 2005년 4월호)

2) 정서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는 편안함과 같은 정서적 안정(35사례)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어릴 때 형제들과 함께 한 기억,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문화적 콘텐츠의 제공(20사례), 그리고 사용자가 계절과 기후,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15사례)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밖에 긍정적 방향으로의 생활태도 변화(11사례), 불편함의 미덕(9사례), 전통의 가치(5사례), 집에 대한 애정(4사례), 정겨운 이웃관계(각각 4사례), 가족 중심적 생활(2사례), 영감의 제공(1사례) 등이 있었다(표10 참조).

가장 많이 언급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요소로는 주로 실내 공간(마당, 연못, 정원, 담), 마루(대청, 툇마루) 등과 오래되고 낮은 가구, 병풍 등의 소품, 그리고 자연소재 및 거친 나뭇결, 기와 등의 오래된 재료가 관련되어 있었고, 문화적 콘텐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락방, 툇마루, 누마루, 댓돌, 골목 등이 있었다. 좁은 면적과 소박한 살림살이 등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낮은 문 높이 등의 불편한 삶에서 미덕과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

대인의 생활양식이나 공간의 편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전통요소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적 안정, 불편함의 미덕, 생활태도의 변화)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의 흙을 쓰면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그 토양이 서로 익숙해져서, 마음과 토양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된다...방이 작으면 좋은 점이 더 많다. 방이 작으니까 물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더 넓어진다....자기 내면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행복이 가득한 집, 2009년 2월호)

(자연과 시간의 변화를 느낌, 집에 대한 애정, 정서적 안정)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그 변화 자체가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 한옥의 매력....한옥에 살면서...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순간순간 많이 느껴요. 어떤 모진 환경에서도 나와 내 가족들을 보듬어 품고 있다는 느낌...”(까사리빙 2005년 6월호)

한편, 주목할 만 한 점은 사용자가 현재 건물로 이주하고 전통요소를 적용한 동기가 현대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느낌과 과거의 추억, 오랜 염원 등 다소 추상적 요인이었던 반면, 생활하면서 느끼는 주요 장점은 전통의 정취나 상징적 가치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있다는 점이다. 즉 자연 친화성이나 개방성, 문화적인 콘텐츠의 제공, 자연과 시간의 변화 체험과 공간의 유기체적 성질 등 사용자의 경험으로 터득한 공간의 본질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전통요소를 적용시킨 건물과 공간이 이 땅과 우리

〈표 11〉 선호하는 장소 및 부분(복수응답)

선호 사항	사례수	세부 설명
마당	17	중심축, 잔디 없는 흙 마당, 정원, 다목적성, 개방성, 여백, 아이들 놀이터,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을 연출, 유년의 기억, 여유로움을 느낌, 스토리텔링, 정원, 정겨움, 이웃집의 기와선이 보임, 기의 전달
창호	9	분함문, 나무대문, 아주 작은 창으로도 들어오는 주변전경, 각 공간의 구획 및 개방성을 통한 입체적 공간미, 한지마감 창, 창살
자연환경	8	자연환경(하늘, 빛, 꽃, 물)과의 근접성, 산중에 있는 형상, 소나무의 상징성, 암벽과 나무의 상쾌함
마루	툇마루	바깥풍경/저녁노을의 감상, 이웃 집 구경, 대청과 연결, 편안한 담소 공간
	대청/거실	채광과 통풍, 아이들 놀이장소, 마당과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개방성
	누마루	반 외부공간, 풍경감상, 책 읽는 공간, 마당과 이웃을 내려다 봄, 여유로운 안식처, 전망
정자	4	주변경치와 채광이 좋고 시원함, 손님접대에 좋음
다락/다락방	3	풍부한 내부 공간구성, 숨어있는 재미, 추억, 수납문제해결, 소굴에 들어앉은 기분
다실	3	은은한 차향
전통구조	3	서까래, 대들보의 감상, 세월에 길들여진 순화된 감정, 기둥의 의미심장한 웅장함
우물가	2	스토리텔링
가구 및 소품	2	나무로 짜 맞춘 수납장, 엔틱 소품
온돌	1	구들
지붕	1	지붕의 곡선
처마	1	-
풍경	1	한옥의 기와 운집
진입로	1	도시로부터의 일탈이 느껴짐
사상과 종교	1	풍수
전통공간특성	1	전통 공간(사랑방)의 재현
장독대	1	-

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보편적인 가치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선호하는 장소 및 부분

기사의 내용 중 사용자가 건물 내외부에서 특별히 선호한다고 언급한 장소나 마음에 든다고 표현한 부분을 조사하여 <표 11>에 정리하였고, 그 결과 마당(7사례), 창호(9사례), 자연환경(8사례), 빛마루(8사례), 대청(7사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마당이 자연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다목적성, 개방성, 여백과 같은 공간 개념 특성, 그리고 여유로움, 유년의 기억, 기의 전달, 정겨움 등으로 인해 선호된다고 하였다. 창호의 경우 다양한 형태와 공간구획 및 개방의 기능, 작은 창으로도 충분히 들어오는 주변 전경으로 인해 좋아하고 있었고, 빛마루는 풍경과 자연의 감상, 대청은 채광과 통풍기능, 놀이장소로서의 용도와 개방성이 언급되었다. 이 밖에 누마루와 정자와 같이 전망이 좋고 채광과 통풍이 좋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좋아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사용자들은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에서 자연채광이나 통풍, 자연환경과의 근접성과 여유로움, 좋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구조와 공간(누마루, 정자, 다락), 창호특성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좋아하는 공간은 불박이장처럼 벽면 한쪽에 숨어있는 작은 다락방이다....이 다락방은 수납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숨바꼭질하던 즐거운 추억까지 끄집어내준다”(까사리빙 2008년 4월호)

“2층 높이에서 마당과 이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누마루는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현재 부부는 이 곳을 다실로 쓰고 있다....누마루만큼 차 맛을 북돋우는 곳도 없다고...”(까사리빙 2007년 1월호)

“(사랑방은)그가 가장 애착을 느끼는 공간이다. 사랑방의 밝고 은근한 창살의 창문사이로 들어오는 바깥경치 또한 놓칠 수 없는 장관이다. 매일 보아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이 공간에서는 자연의 오묘함과 위대한 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000의 설명이다”(까사리빙 2003년 8월호)

V. 결론

본 연구는 현대공간의 전통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전문 디자인잡지 2개 종류의 기사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의 대상년도는 2000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하였고, 수집대상의 기사는 전통요소가 적용된 현대공간에서의 생활에 관한 92건의 기사 중 중복 건물을 종합 정리하여 87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중 한옥을 복원, 개축 및 개조, 신축한 사례가 53사례로 가장 많았고, 건물의 용도는 주택이 51사례로 가장 많았다. 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현재 건물로 이주하거나 공간에 전통요소를 적용한 동기는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개인취향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적한 생활에 대한 선호와 사용자의 오랜 염원, 과거의 기억과 추억, 선조의 유산 보존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 등이 있었다.

둘째, 중점적으로 적용된 전통요소는 전통구조(목조가구 결구식)의 보존과 유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통공간 구성의 개념적 특성과 친환경 재료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개조 및 신축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의도는 전통의 정취를 살리거나 이와 함께 현대적 생활양식의 편의와 실용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이 많았다.

셋째,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점 중 시각적 측면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와 자연재료 사용 등의 자연 친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정서적 측면의 장점으로는 정서적 안정성과 문화적 콘텐츠의 형성이 가장 많았다. 특이할만한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통요소의 불편함이나 소박함이 긍정적 생활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전통요소의 실용화가 전통의 대중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사용자가 건물 내외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다양한 용도와 개방성을 가지면서 정서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마당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와 공간구획의 기능을 가지는 창호, 자연환경, 빛마루, 대청, 누마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축 및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전통요소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들이 전통요소에 대한 초기의 기대이미지로서 복잡한 현대사회와 다른 한적함, 추상적 그리움을 언급한 반면, 전통요소가 적용된 공간에서 생활한 후에는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공간의 직접적 본질과 건강성을 장점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에 대한 형이상학적 경외심은 전통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전통요소는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살아있는 디자인 요소로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통해 전통요소의 진정성이 보다 강조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전통요소의 장점으로서 실내의 환경의 관계형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전통요소 적용이 실내공간뿐 아니라 건물 내 공용공간이나 단지환경까지 확대된 실내의 공간의 소통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는 전통요소의 자연 친화성, 그리고 이와 관련이 깊은 마

당, 텃마루, 대청, 누마루, 정자와 같은 공간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 및 대중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인들이 전통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나 요인, 그리고 선호하는 전통 요소와 관련 공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잡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수집의 수월성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의 사용연수를 자세히 알 수 없었고, 사용자 연령이나 직업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전통요소가 적용된 현대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조건의 사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그들의 경험적 지식을 일반화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경재(1999).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 3-9.
- 김국선, 오옥재, 이은민, 이연숙(2003). 현대 실내건축디자인의 한국성 구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5(5), 98-103.
- 신미옥, 김남효(2008). 현대 실내공간에 반영된 전통성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3), 121-124.
-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 서울: 열화당.
- 오세옥, 김형우(2007). 전통성을 지닌 현대주거건축의 공간 특성과 재료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1), 21-24.
- 오혜경, 이지현(2007).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 관련요소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2), 192-200.
- 유영희(2005).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5), 44-51.
- 이숙경, 최상헌(2006).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한국성 표현방법의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1), 39-46.
- 이완건, 정례화(2006). 스키마에 의한 현대주택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4), 60-67.
- 전경희, 남경숙(2005).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의장요소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1), 116-121.
- <http://happy.design.co.kr> 행복이 가득한 집(2000년 1월호 ~2009년 12월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 http://www.casa.co.kr/company/n_living_list.jsp 까사리빙(2000년 4월호~2009년 12월호)

접 수 일 : 2010년 5월 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15일